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박 소 현

- 서울 효문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제10회)
-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I. 들어가며

합격수기를 쓰는 오늘,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로부터 열흘 정도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족,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고 취업 준비를 위해 정장을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보다 주변에서 더욱 기뻐해줘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합격하면 그저 행복하고 기쁠 것 같다는 작년의 막연한 상상과는 달리 지금의 저는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마인드 컨트롤을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합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크게 들뜨지 않고 오히려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제 공부에는 적성도 없고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 재능과 지능만 믿고 살아온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로스쿨 시기를 지나 어떻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면서,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원고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수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II. 시기별 공부방법

#### 1. 1학년

##### (1) 1학년 1학기 - 필패하는 공부

기본적으로 저는 대학교를 포함한 학창

시절 내내 시험 일주일 전 벼락치기 공부만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습관은 전혀 몸에 배어있지 않았고, 공부에 흥미도 없었습니다. 막연한 꿈과 곁에서 보는 법조인에 대한 환상에 이끌려 로스쿨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행학습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비법학도가, 스스로를 과신하고,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제 첫 학기의 패착입니다. 민법을 제외하고는 형법·헌법의 사례형 목차를 세우는 방법 자체를 몰랐고, 수업시간에는 집중하지 않았으며, 공부시간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게다가 이론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례집만 봤으며, 이마저도 시험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학기를 마치고 나니 저는 생전 처음으로 2점대 학점과 정원 52명 중 40등 대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경험은 제 로스쿨 생활 전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오만함은 겸손함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 착실히 등수를 올리면서 전체 학기 성적 추이를 우상향 그래프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 (2) 1학년 2학기 - 선행학습과 나만의 요약서 만들기

전 학기의 실패를 뼈에 새기고, 여름방학에 2학기에 들을 과목 전부를 선행학습 하였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과목별 수험서에 필기를 하고 밑줄을 그으며 수험서를 '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 방학마다 위 같은 방식을 반복하였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너무 방대해 도저히 요약이 불가능한 물권법 빼고는, 각 과목(행정법,

형사소송법, 기본권론, 형법각론)별로 워드를 이용해 이론과 내신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을 담은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시험범위 부분만 복사하여 콤팩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요약서와 모범답안을 계속해서 암기하며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회독수는 처음에는 외워야 하는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두 번째에는 키워드에 형광펜을 그으며, 세 번째에는 입으로 줄줄 외우는 방식으로 늘렸습니다.

미리 공부하는 방법, 답안지를 쓰는 방법을 드디어 조금 알게 된 학기였습니다. 대단한 상승이 있지는 않았지만, 얼마만큼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오를 수 있는지 방향을 찾은 학기이기도 했습니다.

## 2. 2학년

### (1) 2학년 1학기 - 하위권의 중위권 진입

2학년 역시 1학년 2학기과 마찬가지로 내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1학년 2학기 때보다 요약서 만들기를 일찍 시작하였고, 요약에 요령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복이나 벼락치기 없이 꾸준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덕에 성적이 크게 올라 성취감이 가장 컸던 학기였습니다.

### (2) 2학년 2학기 - 형사법 실력 다지기

2학년 2학기는 법원실무1(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1, 특별형법을 수강했던 학기로, 소위 '형사학기'였습니다. 민사소송법과 상법도 수강하긴 하였으나, 이 시기에 형사법을 끝내 놓으라는 선배들의 조언에 형사법에 큰 비중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실무과목

이 두 개나 되어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었고, 형사법을 ‘끝내는 것’도 물론 하지 못하였지만, 이때 형사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3학년이 되었을 때 형사법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큰 기초 자산이 되었습니다.

### 3. 3학년

#### (1) 3학년 1학기 - 중위권의 상위권 진입

3학년이 되기 전에 민법을 1순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1월부터 2월까지 민법, 친족 상속법을 공부하였고, 남은 시간에는 어음수표법을 공부하였습니다.

3월,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개강이 미뤄져, 그 동안 부족하다고 느꼈던 행정법을 기본부터 다시 복습하였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민사기록형과 법원실무2(민사재판실무)를 위해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론과 민사집행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커리큘럼 상 이 학기에 처음으로 기록형이라는 문제 유형을 접하고, 실제로 시간을 재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연습 수업이 모두 비대면이 되어, 강의실에서 현장감을 느끼며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든 어떻게든 시간 안에 답을 작성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변호사시험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는 교수님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처음 보는 모의고사이기에 부담 없이 한 번 경험해본다는 마음으로 응시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선택형에서 83개라는 저조한 성

적을 받게 되었지만,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처음 공부하는 기록형이 제 적성에 잘 맞아서 민사법기록형, 형사법기록형, 공법기록형 6월 모의고사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 (3) 3학년 2학기 - 마지막 스퍼트

3학년 여름방학에는 7월은 학교에서 진행한 특강을 수강했고, 8월은 마음을 비운 채로 8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학원에 다니며 민사법 진도별 모의고사를 매일 응시하였습니다. 학원 시험에서 약 130명의 수강생 중 10~30등대를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막학기다보니 학교 수업은 3개 과목만 수강하게 되어 학교 수업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법·형사법 연습 수업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강하였고, 헌법 사례형은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수강하였습니다. 헌법 사례형은 학교 수업만으로도 대비가 되었습니다. 문재완 교수님의 3학년 헌법 강의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가 끝나는 9월 중순에서야 처음으로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5회부터 9회까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만 진도별로 1회 풀었습니다.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은 해설을 자세히 읽고, 시중에 나온 객관식 요약집이나 수험서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최신판례 강의와 선택형이었던 국제거래법 강의도 인터넷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치른 10월 모의고사에서도 선택형 88개의 성적을 거두어 많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10모 이후에도 선택형

을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고 제일 부족하다고 느낀 행정법 사례형 공부를 하였습니다.

11월이 되자 체력적으로 무척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 열람실도 가지않고 집에서만 공부하게 되자 의욕이 저하되고 고독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11월, 12월 내내 민법, 친족상속법, 상법, 행정법 파이널 인터넷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없는 과목 위주로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자주 풀었습니다.

#### (4) 변호사시험을 2주일 앞두고

변호사시험을 2주 앞두고서는 매일 한 과목씩 정하여 각 시험 전날 볼 책을 1회독하였습니다. 이때 특히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적었던 국제거래법에 이를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마지막 대비를 하였습니다.

#### (5) 변호사시험 기간

세 번의 모의고사를 겪으며 시험 기간에는 잠을 충분히 잘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직전 주말에 잠을 폭 자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기간에는 전력질주를 한다는 생각으로 전날 반드시 1회독을 하고 항상 새벽에 잤습니다. 민사법 시험 전날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공부를 늦게 시작해 당일 자정부터 1회독을 해 1시간도 자지 못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하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든, 잠을 적게 자든, 공부량이 확보되어 있으면 며칠 무리한 정도로는 결과에 큰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앞으로 시험을 치실 수험생분들은 변호사시험에 갑자기 생길지 모르는 신체적 요인이나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Ⅲ. 과목별 공부방법

#### 1. 민사법

민법은 입학 전에 예비순환으로 예습을 해서 그런지, 2학년 2학기까지 기복 없이 중간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의 기초가 없다는 생각에 3학년이 되는 해의 1월에 들어서야 민법 공부방식을 바꿨습니다. 정연석의 민법 선사기를 들으며 로스쿨 민법의 정석으로 민법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강사의 인터넷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 계속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민법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진도별 모의고사를 수강했을 때 매일 시험을 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각 진도 부분을 암기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한편 민법은 매 학기 스터디를 했지만, 돌이켜보면 무용했습니다. 기출문제의 모범답안을 베껴 쓰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범답안을 베껴 쓰는 것은 1학년 1학기에 잠깐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사례형 스터디는 진도만 알고 쟁점은 모른 채로 공부를 한 다음 스터디에서 문제를 풀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별론으로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듣는 스터디와 3학년 때 하는 진도별 모의고사 스터디는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 2. 형사법

형사법은 학교 수업을 매학기 들었고, 특히 2학년 2학기에 주력으로 준비한 덕에 3학년에 들어서는 큰 어려움 없이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을 잃지 않기 위해 학교에서 하는 연습 수업은 계속 수강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한 달 앞뒀을 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를 반복해서 보는 정도만 하였습니다.

### 3. 공 법

공법은 1학년 때만 학교 수업으로 듣고, 2학년 때는 듣지 않아서 3학년 때 가장 많이 걱정이 되던 과목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없었던 행정법은 모든 과목 중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공부했습니다(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의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헌법은 수험적합성이 뛰어난 학교 수업 덕분에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으나, 행정법은 너무 부족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강성민 행정법 사례형 강의를 수강했고, 정선균 행정법 파이널 및 최신판례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정선균 박사의 행정법 예기스 핸드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1년만에 행정법은 제일 못하는 과목에서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20개 중에 18개를 맞힌 과목이 되었습니다.

### 4. 국제거래법

저는 국제거래법이 민법과 비슷하다는 친구들의 말에 선택법을 국제거래법으로 삼았습니다. 국제거래법 대비는 3학년 1학기에 학교에서 하는 국제사법을 청강하였고, 10월 모의고사 직전에 CISG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됐던 것은 시중에 나온 수험서와 기출문제집 독학이었습니다. 국제거래법은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 투자도 매우 적게 했고, 변호사시험 두세 달 전에 처음 시작하였지만 급한 마음에 더욱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 IV. 유형별 공부방법

### 1. 선택형

선택형 공부는 위에서 썼듯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 9월 중순에서야 변호사시험 5회부터 9회까지의 기출문제를 1번 풀고, 객관식 요약집에 정리해서 변호사시험 직전에 몇 번 반복하여 본 게 다입니다. 사실 단권화시킨 자신의 기본서 또는 수험서로 사례형 및 기록형 공부를 하다보면 선택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별개로 3개년 최신판례를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저 역시 거의 사례·기록형·최신판례 공부만으로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110개대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3회의 모의고사에서 선택형 점수가 낮으면 수험생활 내내 스트레스가 상당하므로, 이 방법으로 선택형 대비를 하시려면 끝까지 자신을 믿는 자신감과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 2. 사례형

변호사시험 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것은 2학년 때까지로 족한 것 같습니다. 3학년이 되면 기출문제는 풀기보다는 문제만 읽고 쟁점을 떠올리는 연습, 목차를 보고 목차를 세우는 연습 정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이 끝나면 교수님들 또는 학원 강사들이 만든 미출 쟁점 또는 기출 쟁점 변형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위 '진도별 모의고사'의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매일 문제를 푸는 것도 좋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자료라도 구하여 시간을 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학년 당해연도 진도별 모의고사에는 최신판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형 대비도 같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3. 기록형

기록형은 3학년 여름방학 전에 한 번이라도 푸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형이 야말로 학교에서 하는 연습 수업을 수강 또는 청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록형은 시간에 맞춰서 답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중요합니다. 독학으로 가장 하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을 활용하든, 스터디를 조직하든 시간을 재어 매주 풀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기록형이 스토리를 보는 재미, 쟁점을 찾는 재미가 있어서 다른 유형보다 기록형 문제를 좋아했고, 학교와 모의고사 성적도 높았습니다. 수험생분들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과목, 즐길 수 있는 유형을 하나씩 정하여 지루하고 고단한 수험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의욕을 얻길 바랍니다.

### V. 공부 외

저는 잠이 많은 편입니다. 졸리면 정말 아무 것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이라고 하여 잠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줄이면 어차피 졸게 되고,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고, 자괴감까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학년에도 매일 8시간을 잤습니다. 밤에는 7시간을 자고, 낮잠으로 1시간을 잤습니다. 주말에는 10시간까지 잤습니다. 깨어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을 줄인다고 공부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건강과 공부의 효율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실 것을 권합니다.

한편 저는 소위 순공시간(순수 공부시간)도 높지 않았습니다. 3학년에도 매일 평균 5-6시간만 공부했습니다. 내신이나 모의고사 시

험기간에는 예외적으로 7-8시간 공부했습니다. 수험생 평균 공부시간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정말 매일,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매일 8-10시간 공부할 수 없는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주제파악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은 10시간, 어느 날은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저처럼 매일, 꾸준히 적당량을 채우면서 공부하는 게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만들고 공부습관을 기르기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경우(특히 기초체력이 부족한 여성분의 경우), 3학년에 들었을 때 기준으로, 그 전까지 꾸준히 운동을 해와서 적당한 근육이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면 운동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유산소 운동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필요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약한 체력으로도 (신체적으로 무척 힘들지만) 변호사시험은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기운 없고 쉽게 지치는 체력이어도 기록 없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나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잘 저울질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3년, 특히 마지막 1년 동안 겪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멘탈이 건강한 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지만, 저 역시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1년의 수험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본인의 힘듦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울감은 전염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동기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을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고민을 털어놓거나 의지하

고 의논할 상대가 필요하다면 동기나 친구들 보다는 이미 수험에 합격한 선배들이 더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고 실질적인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을 우울감이나 불안에서 빠져나오는 치료제로 삼을 것을 추천합니다.

## VI. 모의고사의 중요성

저는 다른 것보다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3번의 모의고사를 치며 저는 3가지를 연습했습니다. (1) 충분한 수면과 식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컨디션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연습. (2)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 특히 사례형의 경우 1, 2문 또는 1, 2, 3 문별로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험 전범위를 시험 전날에 1회독하고 암기할 수 있는 연습. 이를 통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여태 배운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응

시를 통해 위의 세 가지 상황에 익숙해지고, 이에 대비한 다양한 시험 전략을 세워야 추후 변호사시험에서도 각종 위기·돌발 상황에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VII. 맺으며

포기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로스쿨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겨우 본시험을 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에 얽매이지 마세요. 다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 전 학기의 나, 작년의 나보다 노력한다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도 결과로 드러날 것입니다. 3년간의 차분한 성장이 미래를 바꾸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단 한 명의 수험생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